

드림 레터

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

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.parents.go.kr

“저는 라디오PD가 꿈인데 왜 수학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.”

“공부가 하기 싫어요.”

“제가 좋아하는 과목한 가지만 잘해도 되지 않나요?”

“꼭 공부를 잘해야 하나요?”

“예체능은 실기가 더 중요하니 공부안해도 되지 않나요?”

“왜 이렇게 많은 걸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.”

공부는 왜 해야 돼요?

공부는 자녀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각 진로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고 미래를 계획할 때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. 그것이 성적이든지 학습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능력이든지 말이지요. 하지만 자녀들은 당장 수학은 왜 공부해야 하는지, 나의 진로와 학습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그렇다면 공부의 이유를 모르는 자녀에게 학부모로서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? 자녀와 꿈과 진로에 대해 대화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세요.



대화의 재구성

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로 대화



대화의 Tip 2 ▶

학부모님은 계획을 대신 세워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. 자녀가 다시 노력하도록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지요. 자녀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삶의 동기를 발견할 것입니다.



대화의 Tip 3 ▶

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아이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미래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지식을 학습합니다.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과 진로를 명확히 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합니다.



아들

공부를 꼭 해야 돼요?
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

엄마

공부를 게을리 해서 지식을 학습하지 않는다면 꿈을 이루기 어려워질 수 있어. 만약 성적이 낮아서 원하는 꿈에 다가갈 수 없다면 너무 허무하잖아.



아들

그래도 의문이에요. 국어 시간에 소설을 읽고 이야기하는 건 재미있지만 딱딱한 글은 왜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. 수학에서도 도형은 재미있지만 방정식은 '이걸 배워서 어디 쓰나' 싶고요. 그냥 하고 싶은 공부만 하면 안 돼요?

엄마

엄마 어렸을 때도 너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. 내 꿈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과목도, 너무 어려워서 재미없는 것도 왜 배워야 하는지 말아야. 엄마는 직업을 가지고 난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, 우리 아들은 지금부터라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?



아들

그런데 지금 당장은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공부하기 싫어해요. 그리고 제 꿈은 수학 방정식 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의욕이 더 안 생겨요.

엄마

수학이 단순히 숫자와 셈에 대한 과목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넓은 의미일 수도 있어. 방정식을 풀면서 생각을 더 논리적으로 하게 된다거나 나중에 경영 보고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이야. 게임을 할 때 능력치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하달까. '지금 하는 공부는 나중에 어떻게 쓰이게 될까?' 즐겁게 상상하면 네가 꿈꾸는 직업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히 알게 될 거야.



아들

앗 정말요? 그럼 다른 교과목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것도 잘 기억해 두어야겠네요.

엄마

그렇지.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도, 나중에 직업생활을 할 때에도 공부와 학습은 중요하단다. 그리고 지금 하는 공부 속에서도 네 미래의 직업을 만나게 되지. 진로에 대해 더 알게 되면서 우리 아들은 어제보다 한 뼘 더 성장하게 될 게 분명해.

◀ 대화의 Tip 1 ▶

자녀에게 학교 공부를 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 주는 것이 진로 대화의 첫 단계입니다. 공부의 목적이 단순히 우수한 성적을 얻는 것이 아니라 꿈에 다다른 준비임을 안다면 자녀가 좀 더 열심히, 스스로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요?

